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김 주 미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내담자들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기까지 다양한 변인들이 매개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개인적 변인(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망) 및 문화적 변인(개인주의-집단주의)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지역 5개 대학 16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움 추구 태도(Fisher & Turner, 1970), 심리적 불편감(SCL-90-R, 김광일 등, 1984), 자기은폐 성향(Larson & Chastain, 1990), 사회적 지지망(Vaux, 1985), 개인주의-집단주의(Singelis & Triandis et al., 1995)를 측정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문화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일수록,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잠재적 내담자들이 전문적 상담에 대해 지니고 있는 거리감과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상담태도,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망, 개인주의-집단주의, 심리적 불편감

유성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유 성 경,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한 개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유성경, 이동혁, 2000).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까지 내담자들은 “나에게 과연 문제가 있는가?”,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화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적인 도움 추구하고 관련하여 초기 연구들은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Cramer, 1999).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자일수록(Fisher & Turner, 1970), 문화적으로 서구 문화를 내면화한 정도가 높을수록(Ying & Miller, 1992),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Tessler & Schwartz, 1972)와 교육 수준 정도(Leaf, 1987)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인구학적 배경요인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매개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Cramer(1999)는 이제까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리적 불편감(Rickwood & Braithwaite, 1994), 사회지지망(Tata & Leong, 1994), 자기은폐(Larson & Chastain, 1990)가 주요한 관련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어야 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성별, 지지망,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개방, 심리적인 불편감의 정도가 일반적인 도움 추구하고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Rickwood & Braithwaite, 1994)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움 추구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있는 변인이었으나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만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영임(1999)의 연구에서도 문제 자체의 속성보다는 개인이 겪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심각하게 지각하는 자가 상담 요청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내담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는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불편감이 잠재적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Lopez, Mele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예를 들어 상담에 대해 저항이 높은 청소년들이나 미국내의 소수 민족들의 경우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을 이용하는 정도는 스트레스가 낮은 비교 집단에 비해 저조하다(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기까지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Larson과 Chastain(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된 자기은폐(self-concealment) 개념은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자기은폐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자기개방(self-disclosure) 연구의 맥락 속에서 발달했지만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기개방과는 구별된다. 즉, 자기개방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황적·상호적 요소에 대한 반응이라면 자

기은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개방과 달리 인지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며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Wegner & Erber, 1992). Larson과 Chastain(1990)은 자기은폐와 자기개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은폐와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자기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고,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비록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구성 개념임을 밝혔다.

자기은폐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불쾌한 감정, 기억, 정보들은 다소 가벼운 것에서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것까지 다양한데, 흔히 가장 고통스럽거나 외상적인 경험들을 은폐한다. 예를 들어, 강간, 가족의 비밀, 자신에 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 아동기의 성적 학대,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을 포함한 의학적 문제 등을 은폐한다 (Larson & Chastain, 1990). Pennebaker(1989)는 이렇게 자기의 중요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도움을 제한함으로써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자기은폐가 상담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기은폐와 실제적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하여서는 그 영향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부정적이지만, 실제적인 상담 요청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야 하는 상담 과정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만, 이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 요청의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Cepada-Benito와 Short(1998)는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자기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담 추구 가능성이 높음을 보증한다는 징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보고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은폐는 많은 심리 내적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잠재적 내담자의 가장 사적이고 괴로운 경험들에 대한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다.

사회지지망(social network orientation)이란 문제 해결을 돕는 지지자원들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나 기대를 의미한다(Tolsdorf, 1976). 사회적 지지와 적응성과에 관한 연구(Sarason, Shearin, & Pierce, 1987)에 의하면 개인이 실제로 받은 지지(received support)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upport)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인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해 보다 유의한 예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지지자원도 진정한 지지로서

의 가치가 없음을 시사한다.

Tolsdorf(1976)가 제안한 사회지지망(network orientation)의 개념은 실제로 개인이 받는 지지나 지지적인 관계의 객관적인 특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자원들의 잠재적 유용성에 관한 신념, 태도, 기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지지자원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특질적이며,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Sarason, Pierce, Sherin, Sarason, & Waltz, 1991). 또한 부정적인 사회지지망은 비효율적이고 처벌적인 사회적 지지자원을 경험한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낮은 신뢰감, 독립성, 낮은 사회성과 같은 성격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Vaux, 1985). 또한 부정적인 사회지지망은 지지자원의 개입을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위협하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믿음이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다(Tata & Leong, 1994).

한편, 미국내의 동양인 내담자가 서구적 상담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화간 비교 연구(Yamashiro & Matsuoka, 1997; Ying & Miller, 1992)들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동양적 문화 특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돌려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에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나는가(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Atkinson, Gim, & Whiteley, 1990), 매개하는 문화적 변인은 무엇인가(Tata & Leong, 1994; Ying & Miller, 1992)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성이 주요 매개변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Tata와 Leong(199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구화된 문화적 가

치를 내면화한 정도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tkinson & Gim, 1989; Ying & Miller, 1992). 반면, 미국 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및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로 나누어 이들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던 Yoo(199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적 변인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성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차원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한국 문화는 수직주의 경향성이 높은 문화로 이것이 한국인들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내 일반 성인 집단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유성경과 유정이(200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개인주의 가운데 수직적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문화적인 변인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변인과 더불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이 조력 전문 기관에 대한 도움 추구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신뢰도는 .80으로 측정되었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지역의 4년제 대학교 5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16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7세(SD = 3.27)이며 연령의 범위는 18세부터 43세였다. 성별 분포로는 남성이 64명(39.5%), 여성은 98명(60.5%)을 차지하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1.03세(SD = 4.40)이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44세(SD = 2.24)이다.

측정도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질문지

도움 추구에 관한 질문지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도움추구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SPPH)를 사용했다. ASPPH는 총 29개의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보면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낙인에 대한 내인성,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 총점 범위는 29점~116점이다.

본 설문지를 서구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83에서 .84로 보고되어 비교적 신뢰로운 질문지로 평가되고 있다(Fisher & Turner, 1970).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권이 다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한국 문화권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심리적 불편감에 관한 질문지

심리적 불편감에 관한 질문지는 Derogatis(1976)가 Hopkins Symptom Checklist(HSCL)를 발전시켜 제작한 90문항의 Symptom Checklist(SCL-90)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여 제작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로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83개 문항은 9가지 증상 차원으로 분류 채점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채점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이 척도의 총점 범위는 83점~415점이며, 각 항목에서 얻어진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97이었다.

자기은폐 질문지

자기은폐 질문지는 Larson과 Chastain(1990)이 개발한 Self Concealment Scale(SCL)을 장진이(2001)가 번안한 질문지로 사용했다. 본 질문지는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은폐 정도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1에서 5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이 척도는 10점에서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은폐 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Larson과 Chastain(1990)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 α)는 .83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86이었다.

사회지지망 질문지

사회지지망 질문지는 Vaux(1985)가 개발한 Network Orientation Scale(NOS)을 권순미(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NOS는 총 20개의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자신이 문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느낀 정도를 1에서 5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있다(1=매우 그렇다, 5=전혀 아니다). NOS의 총점 범위는 20점 ~ 100점이고 점수의 총합을 내기 전에 긍정적 진술문항은 모두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각 하위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Vaux 등(1986)의 연구에서 NOS의 신뢰도(Cronbach α)는 .88이었으며, 이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76이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은 Singelis와 Triandis 등(1995)이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를 Yoo(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32개 문항으로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수평적 개인주의'(예: 독특한 개인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란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개인은 다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 관점을 일컬으며, '수직적 개인주의'(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속이 상한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를 우선하되, 개인들 간의 불평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관점을 의미한다.

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예: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을 위하여 내 개인의 이익을 대부분 희생한다)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면서 집단 내에 위계적인 지위 구조를 인정하는 집단주의 관점을 의미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때로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삶의 주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수평적 집단주의'(예: 나의 행복은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다)는 개인을 그룹의 일부로 보되, 모든 개인은 평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는 9점 Likert 척도로서 각 하위척도는 8점부터 72점까지 점수 분포를 갖게 된다. 본 질문지의 신뢰도(Cronbach α)는 서구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수평적 개인주의 .67, 수직적 개인주의 .74, 수평적 집단주의 .74, 수직적 집단주의 .68로 보고되어 비교적 신뢰로운 질문지로 평가되고 있다(Singelis & Triandis et al., 1995). 이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77이었으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수직적 개인주의는 .70, 수평적 개인주의는 .82, 수직적 집단주의는 .66, 수평적 집단주의는 .77이었다.

자료수집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우편을 보내어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개 대학에 200부의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171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5.8%였다. 그리고 이 중 문항의 누락으로 9부를 제외하고 총 162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방법

문화적 변인(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

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과 개인적 변인(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위계적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결과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각 변수들간의 전반적인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변인인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문화적 변인 중 수평적 집단주의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심리적 불편감은 자기은폐, 사회지지망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적 변인들 가운데 수직적 개인주의와 정적 상관을,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불편감과 문화적 변인(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의 상관 계수의 크기가 작으므로 해석상 상관 값을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 자기은폐는 사회지지망과 정적 상관을

표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 = 162)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부정적사회 지지망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							
심리적 불편감	-.229**	1						
자기은폐	-.322**	.373**	1					
부정적사회 지지망	-.395**	.399**	.375**	1				
수직적 개인주의	-.091	.192*	.075	.203**	1			
수직적 집단주의	-.060	-.079	-.038	-.139	.011	1		
수평적 개인주의	.017	.048	.192*	.054	.297**	.055	1	
수평적 집단주의	.192*	-.181*	-.159*	-.365**	-.084	.521**	.032	1

* $p < .05$, ** $p < .01$

보이고 있으며, 문화적 변인 중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정적 상관을,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회지지망은 문화적 변인 중 수직적 개인주의와 정적상관을, 수평적 집단주의와 부적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문화적 변인들(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과 개인적 변인들(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망)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적 변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표준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높게 나온 수직적 집단주의($\beta = -.22, p < .05$)와 수평적 집단주의($\beta = .30, p < .01$)를 입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표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정도가 높게 나오는 사회지지망($\beta = -.31, p < .001$)과 자기은폐($\beta = -.19, p < .05$) 요인을 입력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문화적 변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총 설명량은 7%($F_{(2, 159)} = 6.15, p < .01$)였으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게 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를 볼 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해 수평적 집단주의가 수직적 집단주의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인인 사회지지망과 자기은폐가 첨가되어 추가적으로 설명된 양이 15%($F_{(2, 157)} = 14.72, p < .001$)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문화적 변인만 고려했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수평적 집단주의는 개인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2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수평적 집단주의가 사회지지망과 상관이 높은 변인($r = -.37, p < .01$)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문화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총 설명량은 22%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성이 높은 문화적 성향을 지니고, 자기은폐가 높고, 부정적인 사회지지망을 가질 때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표 2.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문화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 = 162)

Model	예언변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β	R^2	ΔR^2	$F(df1, df2)$
1	수직적집단주의	-.22*	.07		6.15(2,159)**
	수평적집단주의	.31***			
2	수직적집단주의	-.19*	.22	.15	14.72(2,157)***
	수평적집단주의	.15			
	부정적사회지지망	-.29***			
	자기은폐	-.20*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 지지망)과 문화적 변인(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지지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그룹 속의 개개인간 지위 구조와 사람들 간의 불평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화특성으로서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상담자를 권위자로 인식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연구한 Yoo(1997)의 연구나 한국 내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유성경과 유정이(2000)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개인 심리적인 변인과 관련된 결과는 자기은폐가 높을수록(장진이, 2001; Komiya, Good, & Sherrod, 2000), 부정적인 사회지지망을 가지고 있을수록(권순미, 1996; Tata & Leong, 1994)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함으로써 자기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에 대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사회지지망이 높을 경우, 주변의 자원들의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개인 변인들과 문화적 변인이 상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상담 태도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잠재적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성이란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지만 위계적인 지위 구조와 권위에 민감한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성이 높은 내담자들에게 상담자나 심리 치료 전문가가 권위적인 인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자신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상담자와 편안하고 효율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은폐 및 부정적인 사회지지망이 높은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개 및 사회적 지지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낮기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오기까지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내담자가 내방하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전통적인 상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담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지역의 대학생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과 사회 계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측정이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기보고식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보고식 자료만을 분

석자료로 삼는다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셋째, 도움 추구 태도와 도움 추구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움 추구 태도가 도움 추구 행동을 잘 예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태도로 행동을 예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권순미 (1996). 문제의 원인 소재, 변화 가능성 지각 및 사회적지지 수용도가 심리 전문 기관에 대한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및 사회적 지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 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kutsu, P., Snowden, L. R, & Organista, K. (1996). Referral Patterns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6-64.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663-668.
- Atkinson, D. R., Gim, R. H., & Whiteley, S. (1990). Asian-American acculturation, severity of concerns, and willingness to see a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81-285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Fisher, E. H., & Turner, J. (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Leaf, P. J., Bruce, M. L., Tischler, G. L., & Holzer, C. E. III.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 demographic factor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275-284.
- Lopez, F. G., Melendez, M. C., Sauer, E. 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79-83.
- Pennebaker, J. W. (1989). Confession, inhibition, and diseas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11-244.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 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 563-572.
- Sarason, B. R., Pierce, G. R., Sherin, E. N., Sarason, I. G., & Waltz, J. A.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arason, B. R., Shearin, E. N., & Pierce, G. R. (1987). Interrelations of social support measu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3-832.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ata, S. R., & Leong, F. T. L.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Tessler, C. R., & Schwartz, S. H. (1972). Help seek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18-326.
- Tolsdorf, C.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03-912.
- Vaux, A. (1985). Factor structure of the Network Orienta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7, 1181-1182.
- Yamashiro, G., & Matsuoka, J. K. (1997). Help-seeking among Asian and Pacific Americans: A multiperspective analysis. *Social Work*, 42, 176-186.
- Ying, Y., & Miller, L. S. (1992). Help-seeking and attitude of Chinese Americans regarding psychologic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49-556.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원고접수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재결정일 : 2002. 12. 3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Joo-Mi K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ultural variables (horizontal individualism, horizontal collectivism, vertical individualism, and vertical collectivism)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 Korea. One hundred and sixty two undergraduates (64 men and 98 wome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Each participant received a package of the instruments;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 Fisher & Turner, 1970),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Kim et al, 1984), the Network Orientation Scale (NOS: Vaux, 1985), the Self-Concealment Scale (SCS: Larson & Chastain, 1990), and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CS: Singelis & Triandis et al, 1995). To analyze data,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vertical collectivism and horizontal collectivism in cultural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Network orientation and self concealment in personal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4) The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vertical individualism, negative social-network orientation, self-concealment people exhibit, the more negative attitudes they hav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counselors and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Help-Seeking, Self-Concealment, Social Network Orienta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